



홍명보장학재단 자선 축구

성탄절인 25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올스타 자선 축구경기에서 산타복장을 한 선수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산타’·‘피겨 산타’ 모두 사랑의 캐롤

김연아 1억4천여만원 성금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성탄절을 보냈어요.” 25일 오후 서울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 ‘KB국민은행과 함께 하는 김연아의 에이절스 온 아이스 2008’을 마친 김연아(18·군포 수리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날 아이스쇼 입장권 수익 전액과 메인스폰서였던 KB국민은행이 기탁한 5천만원을 포함해 총 1억4천363만7천원의 성금이 화귀병과 소아암에 고생하는 어린이들의 치료에 쓰일 예정이어서 김연아의 표정에서 더욱 여유가 넘쳐 흘렀다. 김연아는 아이스쇼를 마치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대부분 훈련을 하면서 지냈는데 오늘처럼 의미있는 행사를 펼쳐서 가슴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J-리그 고베 김남일

한 시즌 계약 연장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는 미드필더 김남일(31)이 한 시즌 더 빛낼 고베 유니폼을 입는다.

고베는 24일 “김남일과 2009 시즌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 기간은 2009년 2월1일부터 2010년 1월1일까지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수원 삼성과 계약이 끝나 고베로 이적한 김남일은 올해 고베에서 J-리그 31경기(1골), 리그컵대회 1경기, 일왕배 1경기 등 총 33경기를 뛰었다.

김남일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 시즌은 팀이 리그 5위 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다음 시즌은 새로운 체제에서 삼기일전해 우승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니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베는 올 시즌 J-리그에서 12승11무11패(승점 47)로 18개 팀 중 10위에 머물렀다. 한편 고베는 2004년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르셀을 포르투갈 벤 피카로부터 임대했다. 계약 기간은 김남일과 같다.

/연합뉴스

‘피겨퀸’ 노바디 춤

‘피겨퀸’ 김연아가 성탄절인 25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김연아의 엔젤스 온 아이스 2008’에서 ‘노바디’에 맞춰 오프닝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느 누구도 불박이 주전은 없다”

KIA ‘무한경쟁’ 돌입

2009년에도 KIA 타이거즈의 ‘무한경쟁’은 계속된다.

KIA는 오는 1월 5일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2009시즌을 향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12월 휴식기 동안 조용히 전개되던 주전 경쟁은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된다.

올 시즌 주전들의 출발상 속에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들과 새로 유니폼을 입게 될 신인들의 패기는 내년 녹색 그라운드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게 된다.

유격수를 향한 내야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주전 유격수의 부재로 고민했던 KIA는 겨우내 ‘2009 루키’ 내야수 안치홍과 손정훈을 가다듬었다.

남해 마무리 캠프에서 집중 조련을 받았던 안치홍과 손정훈은 최희섭, 나지완과 함께 포항 캠프에도 참여해 냉철한 프로무대 데뷔를 준비했다.

용병 발데스의 퇴출로 올 시즌 유격수 자리를 꿰찼던 신인 김선빈도 무등 경기장을 지키며 치열하게 전개될 유격수 경쟁을 대비했다.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격수 100타점 신화의 주인공 홍세완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던 홍세완이 길었던 재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현근·강철민과 함께 필리핀으로 원정 훈련을 다녀올 만큼 내년 시즌을 앞둔 각오가



고참에서 ‘새내기’까지

양보 없는 자리 다툼

유격수·외야 가장 후끈

남다르다. 조범현 감독도 터줏대감 홍세완의 복귀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의 복귀는 내야 경쟁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우여곡절 끝에 선수생활을 보장받은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외야수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은퇴설에 시달리며 혹독한 12월을 보냈던 이종범은 야구 천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새 시작을 다짐했다.

외야에는 올 시즌 KIA 소총부대를 이끌며 공격 전면에 나선 이영규·김원섭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미완의 대기’ 나지완·이호신 그리고 노련미가 돋보이는 최경환과 채종범 등 결출한 경쟁자들이 버

티고 있다.

최희섭과 이재주의 1루 싸움 속에 장성호도 외야 경쟁에 뛰어 들 수 있는 만큼 외야의 생존 경쟁은 올해 보다 더 가열될 전망이다.

‘수비 달인’ 2루수 김종국과 주전 3루수 이현근도 신인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그라운드에 오를 수 있다. 이적 후 팀 적응을 끝낸 김형철, 신인답지 않은 깔끔한 수비를 선보인 최용규와 박진영은 전전 후 수비수. 유격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루키 안치홍과 손정훈도 잠재적인 경쟁자다.

내·외야의 열기만큼 마운드도 뜨겁다. 데이비스와의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KIA는 다른 용병도 투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남은 세 자리를 놓고 투중선수들의 선발 경쟁이 예상된다.

부동의 에이스 윤석민과 부상에서 탈출한 서재응이 선발 자리를 예약한 가운데 셋별처럼 등장한 이범석, 강승구 군단의 일원인 광정철, 팀 기량발전상의 주인공 공 임준혁 그리고 좌완 기대주 양현종이 선발을 향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안방마님의 주인공도 잠정할 수 없다. 부상에서 완쾌한 ‘주장’ 김상훈과 올 시즌 팀의 살림을 도맡았던 차일목, 알짜배기 이상우의 3과전이 예상된다.

2009년 KIA는 ‘경쟁’을 화두로 내세워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V10’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구스타 호나우지뉴

강도에게 집 털러

브라질 축구스타 호나우지뉴(28·AC 밀란)가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강도에게 집을 털리는 악재를 만났다.

AFP통신은 2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경찰과 현지 언론을 인용해 “지난 23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 있는 호나우지뉴 빌라에 4인조 강도가 침입해 보석과 거액의 현금을 털어 달아났다”라며 “다행히 지난 2005년 유럽 올해의 선수로 뽑혀서 받았던 ‘발롱도르’ 트로피는 남겨졌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신문인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빌라 관리인이 침입한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비상벨을 작동했지만 범인들은 모두 도망갔다. 호나우지뉴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 위해 집을 비우고 고향인 브라질로 떠난 상태였다.

이 신문은 “강도들이 보석과 시계, 현금을 훔쳐갔지만 장식장에 있던 발롱도르 트로피를 비롯해 각종 메달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